

##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신 병 주\*

1. 머리말
2. 주요 기록물의 편찬
  - 1) 『承政院日記』의 편찬
  - 2) 『日省錄』의 편찬
  - 3) 儀軌의 편찬
3. 조선후기 기록물 관리 체계
  - 1) 外史庫의 설치와 기록물 관리
  - 2) 外奎章閣의 설치와 기록물 관리
  - 3) ‘實錄形止案’의 작성과 기록물 관리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기록물의 편찬과 관리의 측면을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儀軌의 편찬과, 사고 및 외규장각의 설치, 실록청의례와 실록형지안의 작성을 중심 소재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고문서, 문집, 지리지 등 다양한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국가기록물을 편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시기적으로 연속해서 간행된 거질의 편찬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조선후기에 왕실이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기록물을 편찬, 보관, 관리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다.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에 담은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당대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기록물이 보존되는 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험준한 산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고, 강화도와 같은 국방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외사고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왕명을 받은 사관이 정기적으로 사고에 가서 서책을 점검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기록물 점검의 전 과정을 실록형지안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기록물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왕명을 받은 사관이 포쇄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철저하게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한 결과 현재에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옛 문헌을 접할 수가 있다. 선조들이 남겨준 뛰어난 기록문화와 그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현재에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주제어 : 승정원일기, 일성록, 의례, 사고, 외규장각, 실록형지안, 포쇄**

## 1. 머리말

조선후기에는 조선전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물의 편찬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조선전기를 이어 조선시대 최고

의 관찬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 형식의 儀軌, 이외에도 왕실의 족보, 유교적 의례서, 역사서, 개인문집, 천문 관련서적 등을 편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보존하고 관리하였다.

조선후기의 기록물 보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곳은 규장각이다. 정조 시대 국립도서관으로 세워진 규장각의 도서들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7년 의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더불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3건의 연대기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유하게 되었다.<sup>1)</sup> 이 중에서 『승정원일기』와 의례는 기록물 편찬의 분위기가 풍미했던 조선후기 기록문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실에서 기록물을 편찬하고 관리한 제도에 대한 접근을 통해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과 같은 연대기 기록물의 편찬, 왕실 행사의 기록을 시리즈 형식으로 편찬한 儀軌의 편찬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주요 편찬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外史庫와 外奎章閣의 설치와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기록물의 관리 체계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2)</sup>

외사고는 왕실에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최고의 건물로서, 조

---

1) 1997년 『조선왕조실록』이, 2001년 『승정원일기』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는 규장각 소장 의례 546종, 장서각 소장 의례 287종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 조선후기 최대의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능을 했던 곳은 규장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규장각을 중심으로 규장각을 잠시 언급하는데 그쳤다. 규장각의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신병주, 2007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 함께 참조.

선후기에는 산간 지역의 사고 설치가 추진되었다. 사고 주변에는 수호 사찰 등의 부속건물 까지 설치하여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외규장각은 안전하게 왕실 관련도서를 보관하기 위해 정조가 국방상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판단한 강화도에 설치한 건물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규장각은 1866년의 병인양요로 파괴되면서 이곳에 있던 기록물 대부분도 사라졌다. 다행히 화를 면한 의궤 297책은 현재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한국과 프랑스 간에 끈질긴 반환 협상이 추진 중에 있다.<sup>3)</sup>

이외에 실록을 비롯한 서책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과정을 기록한 장서 점검부 형태의 책자인 ‘실록형지안’에는 조선 왕실에서 曝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소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기록물의 편찬과 관리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 
- 3) 의궤 반환 문제는 현재 외교부가 주도하여 외규장각 도서 자문포럼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양국 정부 간에 유일본 의궤를 중심으로 의궤의 디지털화 사업이 합의되었고, 일부 의궤는 원형대로 디지털화해서 국내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 사업과는 별개로 의궤 반환이라는 원칙은 고수하고 있다.
  - 4)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의궤를 비롯하여, 관찬 사서, 지리지, 법전류, 개인문집에 이르기까지 조선후기는 방대한 기록물을 국가가 주도하여 편찬하고 관리한 측면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너무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실록을 제외한 연대기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국가 기록물의 편찬과 관리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과제로 삼아보려고 한다.

## 2. 주요 기록물의 편찬

### 1) 『承政院日記』의 편찬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연대기 기록물을 편찬하였다. 이 중 『승정원일기』는 조선전기부터 제작되었으나, 현재 인조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만이 남아 있고, 『일성록』은 정조가 세손으로 있으면서 처음 기록되었다. 『備邊司謄錄』은 조선중기 이래 국정 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 비변사에서 매일 매일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현재 광해군 9년(1617)부터 철종에 이르는 11대 250여 년 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관찬 기록물 중에서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의궤 등 연대별 또는 행사별로 연속해서 제작된 기록물의 편찬과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 (1)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심의위원회는 한국이 제출

---

5)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4종의 연대기 기록물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국보 151호, 1973년), 『비변사등록』(국보 152호, 1973년), 『일성록』(국보 153호, 1973년)이 그것으로 조선시대 관찬 연대기 편찬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6) 『비변사등록』에는 王代와 연월일, 매월마다 비변사의 구성원을 기록한 座目이 있으며, 이어 회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요즈음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국정의 최고회의의 회의록으로, 節目, 事目, 別單 등 1차 사료가 다수 수록되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비변사등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한 기록유산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문제가 된 책은 바로 『승정원일기』였다. 『조선왕조실록』이 이미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마당에 『승정원일기』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계인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승정원일기』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전통시대 국가의 공식 연대기 기록이 2종이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그만큼 조선시대 기록문화가 탁월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의 出納을 맡으면서 비서실의 기능을 했던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이다. 원래 조선 건국 초부터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는 1623년(인조 1)부터 1910년(융희 4)까지 288년간의 기록 3,243책이 남아 있다. 현재 남은 분량만으로도 단일 형식의 기록물로는 거의 세계 최대라 할 수 있다. 1999년 4월 9일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의 기분과 숨결, 대화체 기록을 통한 미세한 부분까지 정리된 점, 288년간 빠짐없이 정리된 날씨 기록, 1870년대 이후 세계와 교류한 대외관계에 관한 상세한 기록 등은 『승정원일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승정원일기』의 책 크기는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세로 40센티미터, 가로 28센티미터 정도다. 한 책의 장수는 70~200장 정도로 편차가 있는데, 3,24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045책은 『승정원일기』로만 제목이 된 것이며, 3,243책은 『승정원일기』의 후신인 책까지 포함한 것이다.<sup>7)</sup> 『승정원일기』의 명칭은 근대 이후 정부의 관제가 개편되면서 『승선원일기』, 『궁내부일

---

7)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일기』로 제명된 것 3,045책 이외에, 『승선원일기』 4책, 『궁내부일기』 5책, 『전비서감일기』 8책, 『비서원일기』 115책, 『후비서감일기』 33책, 『규장각일기』 33책 등 총 3,24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 『비서감일기』, 『비서원일기』, 『규장각일기』로 바뀌었는데, 1894년 이후 이처럼 다양한 명칭의 『승정원일기』가 나타나는 것은 승정원의 명칭과 기능이 바뀐 것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근대 이후 왕실 비서실 기능의 거듭되는 변화와 궤도를 같이하는 것으로, 결국 격동하는 근대사의 모습이 『승정원일기』의 제목에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다.

『승정원일기』의 총 장수는 382,487장으로 평균 125장 정도가 한 책을 이루고 있다. 288년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점과 3,243책 총 2억 4,000여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는 점에서 『승정원일기』는 세계 최대의 역사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sup>8)</sup>

1994년부터 『승정원일기』의 번역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에도 중점적으로 번역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고전번역원의 현황 자료에 의하면,<sup>9)</sup> 『승정원일기』의 총 번역 책 수는 2,000여 책으로, 지금처럼 1년에 20책을 국역한다면 향후 10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한다.<sup>10)</sup> 그만큼 『승정원일기』가 거질의 연대기 기록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승정원일기』는 실록 편찬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왕의 최측근 기관인 비서실에서 작성함으로써 국왕의 일거수일투족과 정치의 미세한 부분까지를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喉舌의 직책에 있었던 승정

8) 『승정원일기』에 대해서는 신병주, 2001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규장각』 24.

9) 『승정원일기』의 국역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이 참고가 된다.  
서정문, 2002 「『승정원일기』의 국역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 24.

10)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은 400여책에 달하는데, 『승정원일기』는 절대량으로 5배쯤 된다. 특히 『승정원일기』는 인조 이후의 기록만 남아있으므로, 연도 대비를 하면 『승정원일기』는 실록 분량의 10배 정도가 된다.

신승운, 2008 「승정원일기의 번역과 定本化 문제」 『동아시아 고전적의 현황 정리와 과제』(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한국고전번역원 공동 발표 자료집)

원에서 정리한 기록인 만큼 그야말로 왕의 기분,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담으려 했고 그것이 『승정원일기』의 편찬으로 나타났고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는 앞부분에 기록된 날씨 정보다. 288년의 날씨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날씨는 청(晴:맑음), 음(陰:흐림), 우(雨:비), 설(雪:눈)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전청 오후설(午前晴 午後雪:오전에 맑았다가 오후에 눈이 음)’ 등으로 하루 중 날씨의 변화까지 기록하였으며, 비가 내린 날은 측우기로 수위를 측정한 결과를 꼼꼼히 정리하였다.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만 모아도 전통시대 기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계 처리하면 세계 기후 조사의 표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자연과학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음과 함께 세계보편성의 기록으로서도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승정원일기』의 편찬을 주관한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이었다. 승정원에서는 국왕의 지시 사항이나 명령을 정부 각 기관과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국왕에게 보고가 되는 각종 문서나 신하들의 건의사항을 왕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政院 또는 喉院, 銀臺라는 별칭으로 불렸는데,<sup>11)</sup> '후'는 목구멍을 뜻하는 한자어로 승정원이 국왕의 말을 대변하는 곳임을 상징한다.

『승정원일기』는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국정 상황을 매일 일기로 기록하고 이것을 대개는 월 단위로 모아 편찬한 책이다.<sup>12)</sup> 승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승정원일기』의 편찬이었

---

11) ‘은대’는 중국 송나라 때 궁궐 銀臺門 안에 銀臺司를 두어 천자에게 올리는 문서와 관아 문서를 주관하도록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1820년대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담은 「동궐도」에는 인정전 동쪽 臺廳과 文書庫 사이에 ‘은대’라는 명칭으로 승정원이 표시되어 있다.

다. 편찬은 「承史」라 칭하는 승지와 注書가 공동으로 담당하였으며 최종 기록은 주서들에게 맡겨졌다.<sup>13)</sup> 승지는 무관도 임명될 수 있었으나, 주서는 반드시 학문이 검증된 문관을 뽑아서 임명하였다. 또한 주서는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하게 하여 승정원을 거친 문서나 기록뿐만 아니라 실록 편찬에 참고했던 국내외 각종 기록들을 검토, 정리하는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승정원일기』와 실록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 매일 기록된 일기이므로 일기 전체가 남아 있다면 6,4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 기록된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이나 1624년 이괄의 난 같은 병화와 정변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인조대 이후의 것만 남아 있다. 이후에도 1744년(영조 20)과 1888년(고종 25) 등 몇 차례 화재를 겪었으며 일부가 없어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사시강원의 기록인 『春坊日記』, 「朝報」, 주서를 지낸 사람의 기록인 『堂後日記』, 지방에까지 널리 수집한 각종 기록들을 정리, 종합하여 빠진 부분을 채워 나갔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존하는 288년 3,243책 중에는 72.5%(2,532책)이 당시의 원본이고, 27.5%(891책)는 남은 기록을 토대로 타다 남은 부분을 합하여 다시 모은 改修本이다.<sup>14)</sup>

한편 『승정원일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인 『당후일기』 중 현존하는 것만도 배상익의 『당후일기』, 권두기의 『당후일록』, 霽月齋 『당후일기』, 신택의 『당후일기』 이외에 앞으로 발굴 가

12) 인조에서 경종까지 초기의 기록에서는 2달 내지 3달의 기록이 한 책으로 편집된 사례도 있었지만, 영조대 이후 1달 분량은 1책으로 편집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13) 주서의 직임은 승정원의 일기를 쓰는 것으로서 원래 史官을 겸하지 않았으나, 세조 3년 7월부터 비로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14) 신승운, 앞논문.

능성이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승정원일기』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외에도 각종 상소와 교서, 『일성록』, 『비변사등록』도 『승정원일기』의 저본으로 활용되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조선후기의 기록물은 한 자료가 다른 자료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고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2절에서는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 (2)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비교

『승정원일기』는 무엇보다 매일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쓰였기 때문에 하루의 정치, 한 달의 정치, 일 년 정치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국왕의 동정을 비롯하여 정치의 주요 현안이 되는 자료,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린 상소문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 1차 자료로서 가치도 돋보인다. 아울러 국왕의 건강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고, 국왕의 정무를 보던 장소와 시간대별로 국왕의 이동 상황 등을 꼭 기록했기 때문에 국왕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도 있다. 특히 국왕이 주체가 된 행사의 경우 다른 자료와 비교해보면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훨씬 세밀하다.

본 장에서는 『승정원일기』 기록이 매우 세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sup>16)</sup>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과의 비교를

15) 신승운, 앞논문.

16) 위에서 지적했듯이 동일한 연대의 『승정원일기』의 분량은 『조선왕조실록』의 10배 가량이 된다. 실록이 보다 광범한 내용을 수록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일한 사안에 대한 『승정원일기』의 내용은 매우 자세하다고 볼 수 있다. 1차사료를 거의 그대로 수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시도해 보았다. 『숙종실록』 26년 7월 25일의 기록에는 좌의정 이세백이 평안도 지역에 학문 진흥 분위기가 일어나 선비들이 학문을 진수받을 곳을 구하느라 문신 수령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숙종에게 보고하자, 이를 수용한 내용이 나온다. 이 부분은 『숙종실록』에는 약 10행(1행은 30자)인데 반해, 『승정원일기』의 같은 날 기록은 4면(1면은 30행, 1행은 27자) 21행에 걸쳐 있다. 『숙종실록』은 이세백이 건의한 핵심 내용과 결과만 기술한 반면, 『승정원일기』는 왕과 이세백의 대화를 모조리 기록하고 있다. 국왕의 의견이나 지시인 ‘上曰’, 이세백의 말인 ‘李世白曰’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세백의 건의 내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세백은 문신 수령이 무신 수령보다 민폐를 제거하는데도 훨씬 적극적일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주, 가산, 박천 등지에 문관 수령 파견을 허락받는다. 이처럼 『승정원일기』에는 실록에 실려 있는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논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편집자료가 아닌 1차자료로서의 성격을 짙게 하고 있다.

『승정원일기』가 비서실의 기록인 만큼 왕과 신하들의 독대 기록은 특히 자세하며, 왕의 표정이나 감정 하나까지도 상세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역대 국왕들이 자신의 병세를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약방이나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국왕의 기분과 병세 나아가 왕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다. 국왕의 언행, 기분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철저한 기록정신은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 『승정원일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실록에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이 자주 눈에 들어오는 점도 주목된다. 『영조실록』 영조 15년 5월 을해(30일)

조에는 “영조대에 덕적도에 군사시설을 두는 문제를 두고 강화유수가 지도를 작성해 올려 보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지도 작성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 같은 날 『승정원일기』(영조 15년 5월 30일) 지도 작성자는 강화유수의 軍官인 심동상과 경기수사의 군관인 이세황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7)</sup>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역사 속에 묻힌 인물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영조실록』 영조 36년 3월 16일에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청계천 준설공사를 완료하고 『濬川事實』이라는 책자를 완성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영조가 담당자 홍봉한에게 준천한 뒤에 몇 년간 지탱할 수 있는가를 묻자 그 효과가 백년은 같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온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날짜 『승정원일기』에는 실록에서는 간단히 요약된 사항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국왕과 함께 면담한 인물들의 관직과 성명, 국왕과 신하들의 대화 내용이 모두 실려 있어서 정책의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 왕이 직접 준천한 경계를 묻자 홍봉한이 송전교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답했으며, 수포교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지역은 넓어서 공사가 힘들었다는 구체적인 내용, 국왕이 직접 『준천사실』이라는 책의 제목을 정한 사실 등은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sup>18)</sup>

1866년(고종 3) 3월 3일의 기록에는 고종이 직접 창덕궁 춘당대에 나아가 유생들을 試取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왕이 거동한 시간과 입시한 신하의 명단, 왕의 복장과 궁궐에서의 이동 경로, 시험 실시 과정, 시상한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sup>19)</sup>

17)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5월 30일(영인본 48책, 103쪽 나).

18) 신병주, 2001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규장각』 24.

19) 『승정원일기』 고종 3년 3월 3일(영인본 고종 2책, 889쪽 나).

상이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으로 輿에 올라 선화문을 나갔다. 약방 제조 김병주와 부제조 이재면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아침 일찍 수고로이 거동하셨는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하니, 상이 한결같다고 하였다. 이어 협양문을 나가 건양문·동룡문·청양문을 지나 춘당대로 갔다. 통례가 꿇어앉아 여에서 내리기를 계청하자 상이 여에서 내려 座에 올랐다. 이재면이 아뢰기를, “標信을 내어 둘러친 천막을 열어 유생을 입장시킬까요?”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내린 표신으로 거행하라.” 하였다. 이재면이 아뢰기를, “侍衛와 따라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도 試官으로 낙점된 자가 있는데, 내려가서 예를 행하게 해도 되겠습니까?”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부수찬 엄세 및 유생들이 차례로 서서 四拜禮를 행하고 차례차례 자리로 갔다. 황중현이 入門單子를 읽었다. 상이 시관에게 賦의 제목을 쓰라고 명하였는데, ‘대궐문에 나와 정치에 대해 묻는 날에 조정과 향당에 하유하시니 기강이 서고 풍속이 바로 잡히네.[端門訪治之日 諭朝廷鄉黨 立紀綱正風俗]’라는 것이었고, 마감 시간은 申時였다. 김세균이 꿇어앉아 써서 읽기를 마치자 홍대중이 받들고 나가 내걸었다. 황중현이 講할 서책 望單子를 올리자 상이 《詩傳》을 낙점하였다. 이어 강을 열라고 명하니, 황중현이 아뢰기를, “강할 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자, 상이 이르기를, “추첨해서 하라.”하였다.

위위 기록에서 시험장에 임하는 왕의 복장, 시험 도중 왕과 신하들이 주고받은 대화들을 모두 기록하여 시험장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어 마치 현장을 중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승정원일기』가 모든 정보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국왕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보고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왕이 주체가 되지 않은 의식이

나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선왕조실록』보다 간략히 취급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817년(순조 17) 3월 11일에 행해진 효명세자의 입학식 행사에 대해 『순조실록』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의식의 절차와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승정원일기』는 담당자에게 받은 업무 보고와 국왕의 지시 사항만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결국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서로 보완하여 이용될 때 자료적 가치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궁궐 내 춘추관과 4대 사고에서 관리되어 온 『조선왕조실록』과는 달리, 『승정원일기』는 1부만이 편찬되어 승정원이라는 단일 기관에서 편찬되고 관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승정원일기』 거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것은 당시의 국가 기록물 관리의 철저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승정원일기』의 방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관리 체계도 모범적인 사례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sup>20)</sup>

## 2) 『日省錄』의 편찬

정조는 조선의 국왕 중 여러 면에서 모범을 보인 인물이다. 그중에서도 매일 일기를 쓰고 이것을 국정 기록으로 남긴 점은 국왕으로서 정조의 능력을 다시금 새겨 보게 한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써온 일기는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783년(정조 7) 이후에는 신하들이 기록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지만, 이후의 왕들 역시 정조를 모범 삼아 국정 일기를 써 갔다. 이렇게

---

20) 2008년 4월 23일 관교에 나라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이 개관되었다. 국가 최고 통치자의 기록물 보관이라는 점에서 『승정원일기』 관리의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서 모인 책이 『日省錄』이다. 하루에 세 번 살핀다는 『논어』의 글귀에서 그 제목을 따온 것이다. 『일성록』은 정조부터 마지막 왕 순종까지 150년간에 걸쳐 기록된 2,32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일성록』의 편찬 과정

『일성록』의 모태가 된 것은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부터 쓴 『尊賢閣日記』였다. 정조는 증자가 말한 ‘吾日三省吾身:나는 매일 나를 세 번 반성한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일찍부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은 정조가 『일성록』 편찬을 명하면서 증자의 글귀를 인용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1785년(정조 9) 정조는 자신이 탄생한 후부터 『존현각일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과 즉위한 후의 행적을 기록한 『승정원일기』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중요 사항을 綱과 目으로 나누어 왕의 일기를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규장각 신하들이 실무를 맡았고, 1760년(영조 36)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부터의 기록이 정리되었다.

그런데 왕의 비서실에서 작성하는 『승정원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승정원일기』와는 다른 방식의 편찬을 지시했고, 결국 『일성록』은 주요 현안을 綱과 目으로 나누어 국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책의 제목은 증자의 말에서 따온 ‘일성록’으로 정해졌으며, 조선이 멸망하는 1910년까지 151년간 편찬 작업이 계속되었다.

『일성록』은 국왕 주변에서 매일 일어난 일들을 요점 정리 방식으로 간추린 기록이다.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비롯하여 국왕의 동정과 綸音, 암행어사의 지방 실정 보고서, 가뭄·홍수 구호 대책, 죄수 심리, 정부에서 편찬한 서적, 왕의 행차 때 처리한 민원 등이 월, 일별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주요 현안을 요점

정리하고 기사마다 표제를 붙여서 열람에 편리하게 했다. 예를 들어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4일의 경우 “강계의 蓼 값과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도록 명하였다”는 표제어를 기록하여 이 날의 주요 현안이 환곡 문제였음을 한눈에 알게 했다.

『일성록』의 첫 부분은 날씨로 시작한다. 『일성록』의 날씨 기록은 『승정원일기』의 그것과 함께 조선시대 기상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 『일성록』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용어는 나를 지칭하는 ‘予’다. 일인칭 한자인 ‘予’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 국왕을 지칭하는 ‘上’과 대비되면서 왕 스스로가 쓴 일기임을 확실히 증명해준다. 『일성록』에는 위민 정치를 실천한 정조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擊錘(뿔과리를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함), 上言에 관한 철저한 기록이 그것으로서 『일성록』에는 1,300여 건 이상의 격쟁 관련 기록이 실려 있다.<sup>21)</sup> 정조는 행차 때마다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그 해결책을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일성록』에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조가 왕세손으로 있으면서 올린 혼례식 과정은 『영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매우 소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정조의 일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이 일제의 주도하에 편찬되어 그 한계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같은 시대의 『일성록』 기록은 『승정원일기』와 함께 근대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료로 평가를 받고 있다.

---

21) 한상권, 1996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일조각.

## (2) 『일성록』에 나타난 刀削 흔적과 의미

『일성록』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전례의 고증이 필요한 경우 열람을 허용했다. ‘왕실의 秘史’로 인식하여 보관에 주력한 『조선왕조실록』과는 달리 『일성록』은 국정 참고용 기록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보관이라는 측면 이외에 활용이라는 측면도 컸다. 그러나 19세기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성록』은 큰 수난을 당하였다. 최고 집권자 측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불리한 기록을 오려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일성록』에서 오려진 곳은 정조 10년 12월 1일부터 정조 23년 11월 5일까지 총 635곳에 달한다. 이처럼 『일성록』이 수난을 당한 것은 19세기 세도정치기에 왕을 마음대로 즉위시킨 외척 세도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종 사후 왕을 임명할 수 있는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 김씨였다.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외척 세도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로, 차기 왕으로 강화에 귀양을 가 있던 이원범(후의 철종)을 지명하였다. 이원범은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의 후손으로, 은언군은 정조대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강화도에 귀양을 갔다가 결국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다. 원범은 은언군의 아들인 전개군의 셋째 아들로 역모죄로 강화도에 귀양을 온 선대를 따라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이었다. 그런 원범에게 갑자기 거창한 儀仗 행렬이 따라오고, 왕의 자리에 오르라는 조정의 요청이 떨어진 것이다.

19세기 후반 권위가 추락한 조선왕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해프닝이지만 어쨌든 원범은 조선의 25대 왕 철종으로 즉위하였다.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왕이 되는 상황, 어쩌면 무너져가는

조선왕조의 모습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범의 선대가 역적이라는 점은 철종을 왕으로 지목한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급기야 『일성록』의 정조시대 기록 중 원범의 선대와 관련된 주요 기록이 刀削되었다. 도삭된 날짜를 『철종실록』과 비교하면 대부분 은언군이나 상계군<sup>22)</sup>과 관련된 기록으로, 모두 철종의 先系에 관해서는 불리한 내용들이다. 결국 도삭의 정치적 배후에 순원왕후를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세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일성록』 원본에는 칼로 잘려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일성록』이 조선 후기 세도정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성록』이 국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원 사료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일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3)</sup> 실록을 궁중의 秘史라 하여 왕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史庫에 보관한 것에 주력하여 현재 내용 훼손이 거의 없는 상황과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 (3) 『일성록』과 『승정원일기』의 관계

『일성록』과 가장 흡사한 성격을 띠는 자료가 『승정원일기』이다. 원래 『일성록』은 순수한 역사기록이라기보다는 왕의 修己를 위한 기록물에 가깝지만 실제 조정과 내외 관리들에 관련된 광범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조는 『홍재전서』에서

---

22) 은언군의 아들, 정조 즉위 초부터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당하였다.  
 23) 실록의 경우 조선후기 붕당정치가 치열해 지면서 반대 정파가 집권하면 수정 실록을 편찬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실록은 원래의 실록은 훼손하지 않고, 수정실록의 형태로 따로 만든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內閣(규장각)에서 정리하는 『일성록』은 丙申年(1776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 상세한 기술과 빈틈없는 수록을 승정원의 주서는 아마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개 신하들을 引接하고 경연 석상에서 酬應한 내용, 관료들이 정사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 상소나 上筭 등, 안으로 百司의 문건에 대한 판단과 밖으로 팔도의 狀啓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빠뜨림이 없고 포괄하지 않음이 없으니 실로 거대한 典據이고 광대한 기록이다.<sup>24)</sup>

라고 하여 『일성록』의 기록이 『승정원일기』 보다 방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조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성록』의 편찬 작업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또한 정조는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래로 중서성에 시정기를 비치하고 추밀원에 『內廷日歷』을 비치해왔다면서, “우리 왕조에 승정원에 일기를 두고, 내각에 일성록을 두게 된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라 하여, 『일성록』과 『승정원일기』를 따로 두고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은 궁중에 보관되었으면서도 비교적 철저히 관리를 해 온 덕분에<sup>25)</sup> 현재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24) 『弘齋全書』 권165 日得錄 (1986년 태학사 영인본 34쪽 라)

內閣所修之日省錄 丙申以前所未曾有者也 其記述之該詳 載錄之纖悉 政院之起居注 殆不及什一焉 蓋自臣僚晉接 筵席酬對 官師言事 公車章奏 內而百司簿判 外而八道啓狀 廳所或遺 無不彙括 誠鉅典也 廣記也.

25) 『승정원일기』는 영조 20년과 고종 연간에 큰 화재를 당해 소실되기도 했으나, 그 때마다 관련 기록을 참조해 개수하여 보충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 3) 儀軌의 편찬

#### (1) 의례 편찬의 의의

의례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으면 그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한 책이다. 필요한 경우 그림을 첨부하여 행사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게 하였다. 한자로 풀이하면 儀式과 軌範을 합한 말인데, 規범은 規는 바퀴, 범은 모범이란 뜻으로 바퀴의 規도를 따라 가듯이 이전 행사를 잘 이어받고 그것을 정리하여 후대에까지 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참고하여 선왕의 法도를 계승하는 한편,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의례를 만든 주요한 목적이었다. 후대인들이 앞 시기에 편찬된 의례를 참고하여 혼례식이나 장례식, 궁중 잔치 등 국가의 주요한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의례는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가 끝난 후에 제작하는 행사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혼인을 비롯하여 세자의 책봉, 왕실의 잔치, 왕실의 장례, 궁궐의 건축 등과 같이 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기록을 모아두었다가, 행사에 끝난 뒤에 의례 편찬을 담당할 임시 기구인 都監을 만들어 의례를 편찬했다. 말하자면 국가적 행사를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 의례라는 행사 보고서 작성, 국왕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행사를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도감은 행사의 명칭에 따라 각각 그 이름이 달랐다. 즉 왕실의 혼례의 경우에는 가례도감, 국왕이나 왕세자의 책봉의식에는 책례도감, 왕실의 장례에는 국장도감, 사신을 맞이한 행사일

경우에는 영접도감, 궁궐의 건축과 같은 일을 행할 때는 영건도감 등과 같은 이름을 붙였으며, 이들 임시기구인 도감에서는 각기 맡은 행사를 주관하였다. 오늘날로 치면 올림픽 조직위원회, 월드컵 준비위원회,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관리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감의 직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都提調 1인은 정승급에서 임명되었으며, 부책임자급인 提調 3~4명은 판서급에서 맡았다. 실무 관리자들인 都廳 2~3명, 郎廳 4~8명 및 監造官(감독관)은 당하관의 벼슬아치들 중에서 뽑았으며, 그 아래에 문서작성, 문서수발, 회계, 창고정리 등의 행정 지원을 맡은 하급 관리들이 수명씩 임명되었다. 이외에 화원, 장인 등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부서별로 배치하였고, 의례가 만들어 질 때 이들의 實名을 꼭 기록하여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을 부여하였다.

도감에서는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문서들을 수집하였다. 일방, 이방, 삼방 등 업무 분장을 맡은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담당한 업무 내용을 정리하였고, 필요한 경우 도설과 반차도와 같은 그림 자료들을 첨부하였다. 행사 후 도감과 각 房에서 모아진 문서들을 모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의례가 제작되었다.<sup>26)</sup>

의례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림이다. 의례는 행사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천연색의 班次圖나 각종 건물이나 물품을 그린 圖說을 수록한 그림책이기도 하다. 통상 천연색으로 그

26) 김문식·신병주, 2005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례』 들베개.

려진 그림들을 통해서 행사가 진행되던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물품의 세부 사항까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궤는 기록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행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의궤가 지니는 희소성과 세밀한 기록, 3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기록 등을 근거로, 2006년 우리 정부는 의궤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7년 6월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의궤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sup>27)</sup> 기록물로서 의궤의 자료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 (2) 조선후기의 의궤 편찬

의궤는 선왕의 법도를 최대한 따르려는 유교 이념이 강하게 나타난 책이다. 또한 당대의 모습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려는 조선시대의 투철한 기록정신이 대를 이어 의궤를 편찬하는 힘이 되었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전기부터 이미 의궤가 있었음이 나타난다. 태종 때 ‘종묘에 앵두를 제사에 올리는 것이 의궤에 실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미 조선초기에 의궤가 편찬되었음은 물론이고, 고려시대부터 의궤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의궤가 전대의 전통을 따르는 기록인 만큼 조선초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의궤편찬에 착수했다는 것은 이전의 전통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성종 15년에는 영중추부사 이극배가 1395년 경복궁을 건설한 과정을 정리한 『경복궁조성의궤』에 대해 언급을 한 기록이 보이는데,<sup>28)</sup> 이 기록

27) 규장각 소장 의궤 546종 2,940책과 장서각 소장 의궤 295종 529책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의궤 297책과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등 해외에 있는 의궤는 포함되지 않았다.

28)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정해).

역시 조선 건국 직후 의궤를 편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종 때에는 태조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太祖康憲大王 喪葬儀軌』가 편찬되었고, 세종 때에는 정종과 원경왕후의 국장 과정을 담은 의궤, 왕세자빈의 책봉과 관련된 의궤 등이 편찬되었다. 성종 때에는 인수대비 한씨에게 올리는 尊號印을 의궤에 의거하여 그 크기를 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29)</sup> 이처럼 조선전기부터 국가의 중요 의식을 의궤로 편찬하는 관행이 이어졌음을 볼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아쉽게도 조선전기에 제작된 의궤 중 현존하는 의궤는 없다. 이 시기에 제작된 의궤는 거의 모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유실되었다. 1593년 10월 예조에서는 ‘난리를 겪은 뒤로 본조의 삼사의 의궤가 남김없이 유실되었다.’라고 보고한 상황은 전란의 와중에서 의궤가 대부분 없어진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현재 전하는 의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인 1600년(선조 33)에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의 장례식을 치루고 이에 관한 의궤를 편찬한 것이다. 의인왕후의 장례는 국장도감, 빈전 혼전도감, 산릉도감의 세 도감에서 업무를 분장하여 치러졌고, 장례식 이후 세 도감에서 주관한 의궤 3종이 편찬되었다.<sup>31)</sup> 임진왜란 이후 국가가 수습된 이후인 선조 후반에는 전쟁 이후 국왕의 위상을 높이고 공신들에게 상을 준 내역을 기록한 의궤들이 편찬되었지만,<sup>32)</sup> 전란 직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찬된 것

29) 『성종실록』 권 51 성종 6년 1월 12일(임술).

30) 조선전기 의궤 편찬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영우, 2005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38~44쪽 참조.

31) 이 중 『국장도감의궤』는 소실되고, 『빈전혼전도감의궤』와 『산릉도감의궤』 각 1책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다.

32) 『宣祖再尊號都監儀軌』,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등이 그것이다.

이므로 그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sup>33)</sup>

광해군 시대부터 의궤 편찬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sup>34)</sup> 그런데 의궤의 전체 목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광해군대에 제작된 의궤 중에서는 뒤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의궤가 몇 종 있는 것이 주목된다.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정의궤』와 『화기도감의궤』, 『흙경각영건의궤』, 『보루각수개의궤』, 『영접도감의궤』 등이 그것이다. 이들 의궤 중에는 전란 후의 풍속 정비와 관련된 의궤도 있지만 국방과 과학과 외교 등에 관한 의궤가 눈에 띈다. 의궤가 대체로 전대 왕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것은 광해군 정권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인조반정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함께 광해군 시기만이 가지는 외교, 국방, 과학에 대한 관심 등 실용 중시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여겨진다.<sup>35)</sup>

1623년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인조시대 이후에는 성리학 이념이 보다 강화되면서 유교적 예법과 관계된 의궤 편찬에도 신경을 썼다. 그러나 인조에서 현종을 거치는 시기 호란을 겪고 북벌이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는 등 정국이 불안한 과정을 반영하듯이, 의궤 편찬의 전통은 이어졌으나 혼례, 책례, 장례 등 기본적인 의궤 편찬에 그쳤다.

조선후기 의궤 편찬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문화 중흥이 전개되던 숙종, 영조, 정조 시대에 들어와 보다 다양하고 활발해졌다. 숙종 시대에는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고 국가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반영한 의궤가 편찬되었는데, 단종의 복위와 관련한 의궤가 주목된다. 영조 시대에는 『대사례의궤』, 『친경의

33) 한영우, 2005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51쪽.

34)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27종의 의궤가 편찬되어 19종이 남아 있다. 현전하는 19종 의궤는 모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35) 신병주, 2006 「광해군 시기 의궤 편찬과 그 성격」 『남명학연구』 22.

궈』, 『친잠의궈』 등이 새로 제작되었으며, 역대 왕의 어진을 모사한 과정을 기록한 의궈도 다수 제작되었다. 『가례도감의궈』의 경우에도 전대의 의궈 보다 분량이 많아지고 반차도의 면수도 훨씬 많아지는 등 보다 정형화된 의궈 편찬이 이루어졌다.

의궈는 대부분 손으로 직접 쓰고 그림을 그린 필사본으로서 대개 5부에서 9부 정도를 제작했다. 그런데 정조 시대에 편찬된 『원행을묘정리의궈』나 『화성성역의궈』를 비롯하여 일부 의궈는 활자본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정계천의 벽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정조의 화성 행차 모습을 담은 班次圖는 활자본 의궈 속에 포함된 목판본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궁중 잔치의 모습을 담은 『進饌儀軌』나 『進宴儀軌』, 『進爵儀軌』 등은 활자본으로 제작해서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략 100부 내외를 만든 활자본 의궈는 행사 참여자들에게 보급하여 축하하는 성격을 지녔다. 축제적 성격을 갖는 왕실 행사를 널리 알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사본 의궈는 규장각이나 장서각 파리국립도서관에만 국한되어 보관되어 있지만 활자본 의궈는 현재 대학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박물관 등지에서 일부 발견되고 있다. 행사 참여자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궈 편찬은 순조, 헌종, 철종이 재위한 흔히들 세도정치기라 부르는 시기에도 이어졌다. 정치적으로는 문란했지만 왕실에서 의궈를 편찬하는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다. 오히려 왕실의 잔치 행사를 담은 의궈의 빈도는 늘어났다. 의궈 편찬에 큰 변화가 온 것은 고종 시대이다.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가 되었고, 의궈 제작에 있어서도 어람용 의궈를 2부 이상 만들어 한 부는 황제에게, 한 부는 황태자에게 올리도록 했다. 또한 왕제에게 올리는 의궈의 표지를 천자만이 쓸 수 있는 황색

으로 제작하는 등 황제 국가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고종시대에 제작된 의궤의 반차도에 나타난 가마 등도 대부분 황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황제의 격상과 함께 왕세자의 지위도 황태자로 격상되었고, 황태자에게 올리는 의궤의 표지는 붉은 색으로 만들었다. 의궤의 표지 변화는 대한제국의 위상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조선왕조 시기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의궤는 1926년 순종황제의 국장을 기록한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와 1928년 순종황제와 순명황후의 삼년상을 치른 후 神主를 宗廟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이다. 이후에도 일제에 의해 『宗廟永寧展儀軌』(1928년, 1942년), 『各陵儀軌』(1935년), 『廟展宮園壇墓의궤』(1935년) 등이 제작되었다.<sup>36)</sup> 의궤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부터 꾸준히 그 전통이 계승되었으며, 일제 시대 왕조의 비운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 (3) 의궤에 기록된 왕실 행사

의궤에는 조선시대에 행해진 다양한 왕실 행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이 왕조국가인 만큼 주로 왕실 행사와 관련된 것들이며, 왕실의 일생을 보여주는 의궤들이 많다. 의궤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태를 봉안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태실 의궤와 태실에 石物을 조성한 의궤를 비롯하여, 왕이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일상생활 대부분을 망라하였다. 먼저 왕자가 왕이 되

36) 한영우, 2005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37) 1930년대의 의궤는 특정한 행사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이왕직이 관장하던 왕실 제례의 축문을 정리한 장부에 불과하였다. 왕조의 멸망과 함께 의궤도 그 이름만 남고 조선 왕실의 위엄은 사라진 것이다.

기 위해서 꼭 필요한 왕세자의 책봉 의식과 선왕을 이어 왕이 되는 책봉 과정에 관한 의례가 있다. 왕세자빈이나 왕비의 경우에도 책봉식을 행하는데 이에 관한 행사는 『冊禮都監儀軌』로 정리하였다. 대개 왕세자 시절인 15세 전후에 이루어지는 왕의 혼례식도 꼭 의례로 정리하였다. 왕실의 혼례식을 嘉禮라 하였고, 혼례식을 정리한 『가례도감의궤』는 조선 왕실의 최대 축제였던 만큼 그림도 많이 첨부되었고 내용도 풍부하였다.

의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례가 왕실의 장례 관련 의례이다. 유교사회인 조선사회는 왕부터 백성까지 조상의 장례를 잘 거행하고 이후의 제사 의식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다. 왕이나 왕비가 사망하면 장례식이 엄숙하게 행해졌고, 장례식의 전 과정은 『國葬都監儀軌』로 편찬하였다. 이어 왕의 무덤을 조성한 과정을 정리한 『山陵都監儀軌』가 편찬되었고, 왕의 神主를 종묘에 모시는 의식은 『祔廟都監儀軌』로 정리되었다.

왕의 활동과 관련된 의례도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왕이 되면 주관하는 행사가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의례가 편찬되었다. 왕이 친히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宗廟儀軌』와 『社稷署儀軌』를 비롯하여,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왕이 친히 농사를 짓는 과정을 정리한 『親耕儀軌』가 편찬되었다. 여성이 옷감을 짜는 것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왕비는 누에에서 실을 뽑아 옷을 짜는 친잠 행사를 주관하였다. 그리고 친잠 행사의 전 과정은 『親蠶儀軌』로 편찬되었다. 왕실 행사 중 잔치의 비중도 컸다. 대왕대비나 왕대비 등 왕실의 최고 여성을 위해 벌이는 잔치 행사, 왕이 40세, 50세, 회갑이 되는 것 등을 기념하는 행사가 추진되었고, 잔치가 끝난 후에는 『豊呈都監儀軌』, 『進宴儀軌』, 『進饌儀軌』, 『進爵儀軌』 등 잔치 관련 의례가 만들어졌다.<sup>38)</sup>

38) ‘풍정’은 조선전기이래로 왕실의 잔치를 뜻하는 용어였으며, ‘진연’은 ‘잔치를

정조가 어머니의 회갑 잔치를 위하여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화성에 행차하였던 모습을 담은 『園幸乙卯整理儀軌』는 잔치 관련 의례를 대표한다.<sup>39)</sup>

왕의 어진을 직접 그린 후에는 『御眞圖寫都監儀軌』를, 기존의 영정을 참고하여 왕의 어진을 그린 후에는 『影幀模寫都監儀軌』를 편찬하였다. 궁궐의 건축이나 성곽의 건축을 한 후에도 꼭 의례를 만들었다. 건축 관련 의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조가 지금의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 건축의 전 과정과 각 건물의 도면까지 기록한 『華城城役儀軌』이다. 창경궁, 창덕궁, 경운궁 등 조선의 궁궐을 수리한 과정을 정리한 의례들도 있다. 이외에 자격루, 측우기 등 과학기구들을 활용하고 보관하는 건물을 제작한 과정을 기록한 『報漏閣修改儀軌』와 『欽敬閣營建儀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왕이 성균관에 친히 행차하여 신하들과 활쏘기 시합을 하고 화살을 맞힌 수에 따라 상과 벌을 주고받았던 의식의 과정을 기록한 『大射禮儀軌』,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사신을 맞이한 상황을 정리한 『迎接都監儀軌』, 궁중에서 필요한 악기를 만들었던 상황을 기록한 『樂器造成廳儀軌』 등을 통해서도 조선시대 다양한 왕실 행사의 생생한 현장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세상에 태어나는 첫 징표인 왕실의 태를 봉안하는 의식부터 시작하여 왕의 혼이 종묘에 모셔져 영원히 기억되게 하는 의식까지, 왕실의 일생은 의례의 기록으로 남았다. 그리고 왕실이 주도한 국가 행사의 대부분을 의례로 남겼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

---

배푼다'는 뜻이며, '진찬'은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이며, '진작'은 '爵位를 올린다'는 뜻으로 모두 경사를 맞이하여 잔치를 베푸는 의식을 말한다.

39) 한영우, 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효형출판)은 『인행을묘정리의례』를 중심으로 정조의 화성행차를 쉽게 풀이한 책으로 의례의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대 왕실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 3. 조선후기 기록물 관리 체계

#### 1) 外史庫의 설치와 기록물 관리

위에서 조선후기에 편찬된 기록물 중 『승정원일기』, 『일성록』, 의례 등 국가나 왕실에서 주도하고 현재까지 거질의 기록물로 남아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편찬사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조선후기에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고 점검한 관리 체계 중에서 史庫와 外奎章閣, ‘實錄形止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전기부터 실록은 서울에 있던 춘추관을 비롯하여 충주·전주·성주 등 지방의 중심지에 분산 보관하였다. 한 지역에 실록을 보관했다가 소실될 경우 영원히 전대의 실록을 복구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지는 『고려실록』이 외침의 과정에서 모두 없어진 경험도 크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중심지는 화재와 약탈 등 실록이 소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제기되었으며, 실제 종종 때에는 비둘기를 잡다가 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실록이 소실되어 관련자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sup>40)</sup> 그리고 급기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주 사고에 소장된 실록을 제외한 모든 사고의 실록이 소실되면서 사고를 힘준한 산지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결국 선조 이후 산간 지역에 외사고를 설치하게 되었다.

---

40) 『중종실록』 권89 중종 34년 1월 14일(계미).

임진왜란이 끝난 광해군대 이후 조선의 사고는 5사고 체제로 운영되었다. 서울의 춘추관사고를 비롯하여 강화도의 마니산사고,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사고,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사고,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사고가 그것으로서, 지역별 안배를 한 후에 험준한 산지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에 사고의 배치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묘향산사고는 후금(뒤의 청나라)의 침입을 대비하여 적상산성이라는 천연의 요새로 둘러싸인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사고로 이전했으며, 강화의 마니산사고는 병자호란으로 크게 파손되고 1653년(효종 4) 화재가 일어나면서 1660년(현종 1)에 인근의 정족산사고로 이전하였다. 결국 조선후기 지방의 4사고는 정족산, 적상산, 태백산, 오대산으로 확정되었고, 이 체제는 1910년 사고가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변환될 때까지 계속되었다.<sup>41)</sup> 국가 관리 하에 산간 지역에 외사고를 설치한 것이 실록을 비롯한 기록물 관리의 최고 성공 요인이었다.

史庫를 산간지역에 둔 것은 무엇보다 기록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특히 전란 속에서 사고가 훼손되자 무엇보다 적의 침입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사고 옆에는 수호 사찰을 두어<sup>42)</sup> 승병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지키게 한 것도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화재나 도난과 같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sup>43)</sup>

41) 김용곤, 1991 「역사와 함께 부침한 4대 사고」 『역사산책』 1991년 9월호.

42) 사고를 지키는 사찰을 수호사찰이라 하였다. 정족산사고의 전등사, 태백산사고의 각화사, 오대산사고의 월정사, 적상산사고의 안국사가 바로 수호사찰에 해당된다.

43)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승례문 등 문화재 방화 사건은 무엇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점에서도 산간 지역의 사고 설치의 기록물을 장기 보존하는 주요인으로 평가된다.

산간 지역에 사고가 설치됨으로써 보관이나 관리의 측면에서 큰 불편이 따랐다. 당시 사고에 파견하는 史官의 자격 중에서 건강을 특히 고려한 점도 이러한 정황과 관련이 깊다.<sup>44)</sup> 산간에 사고를 설치함으로써 실록을 보관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전대의 실록을 참고하여 열람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실록이 후대에까지 널리 보존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에 자신들에게 따르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였던 것이다.<sup>45)</sup>

사고에 대한 조선 왕실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는 지도 제작에서도 확인된다. 17세기 중엽 영조 시대에 제작된 전국 군현 지도집인 『海東地圖』나 1872년 대원군대에 편찬된 군현지도와 같은 조선후기 지도에는 예외가 없이 사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만큼 사고가 중시된 당대인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1872년에 작성된 茂州府 지도의 경우 적상산 사고의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sup>46)</sup> 정조시대의 궁정 화가 김홍도의 그림 중에도 오대산 사고가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끄는데, 김홍도의 그림을 정조가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는 국정 통치에도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史庫는 크게 실록을 비롯한 서책을 보관하는 史閣과 선원록 등 왕실 족보를 주로 보관한 璿源閣으로 구성되었다. 강화도의 정족산 사고를 제외한 지방의 외사고는 모두 2층의 목조건물로

44) 숙종 때 사관으로 있었던 申靖夏는 동료 宋成明이 사관의 임무를 띠고 오대산으로 가는 것을 송별하는 글에서, 사관은 질병이 적고 건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암집』, 권10 「送宋翰林聖集驪史五臺序」 참조)

45) 신병주, 2001 『『조선왕조실록』의 奉安의식과 관리』 『한국사연구』 115.

46) 이 지도에 의하면 12칸의 史閣, 6칸의 璿源閣을 비롯하여, 軍器廳(7칸), 參奉殿, 수호사찰인 安國寺의 구조가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무주에서는 이 지도를 토대로 사고를 복원하였고, 2008년 이곳 사고에 보관하였던 서책들을 전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구성되었으나, 정족산사고는 海風의 방지를 위하여 1층으로 만들었다.<sup>47)</sup> 또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밖으로 방화벽인 돌담장을 설치했으며 방습 시설을 갖추었다. 사고에 보관한 책은 『조선왕조실록』 이외에 의궤를 비롯하여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된 『고려사』, 『동국통감』, 『여지승람』, 『동문선』 등과 같은 역사서, 지리서, 개인 문집들이었다. 개인문집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문집만을 사고에 보관하였다.

조선후기까지 안전한 산간지역에서 철저히 관리되어 온 기록물은 이후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보관처에 여러 번 변동을 겪게 된다. 오대산에 보관되었던 실록은 일본에 반출된 후 관동대지진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가 겨우 남은 74책이<sup>48)</sup>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고,<sup>49)</sup> 적상산본 『조선왕조실록』은 6.25전쟁 때 북한으로 넘어가 현재 평양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족산과 태백산에 보관되었던 기록물 대부분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을 거쳐, 1945년 이후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이어지고 있다.<sup>50)</sup> 이 중 태백산본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센터에 보관하고 있다. 조선왕실에서 제작된 기록물 대부분이 현재에도 이어져 그 실물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산간 지방에 사고

47) 1920년대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정족산 사고의 모습은 단층이다.

48) 오대산본 실록은 원래 788책이 있었으나,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동경대에 47책, 경성제대에 27책만이 보관되어 있었다.

신병주, 2006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간행과 보관』 『역사와 현실』 61.

49)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중 동경대에 있던 47책이 2006년 7월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오대산본 실록의 반환은 길고물의 보관처가 현대에도 계속 변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50) 이에 대해서는 이태진, 1998 「조선왕조실록」 『한국사시민강좌』 23집, 33~35쪽 참조.

를 설치하여 기록물을 가장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이를 철저히 보존, 관리했던 점을 꼽을 수가 있다.

## 2) 外奎章閣의 설치와 기록물 관리

조선왕실의 기록물 보존과 관리에서 그 영광과 수난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강화도에 설치한 외규장각이다. 조선의 22대왕 정조가 1776년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일은 규장각의 설립이었다. 역대 왕이 지은 글인 御製와 서적을 보관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조선 전기 세조 때 양성지에 의하여 규장각 설치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숙종 때에 선왕들의 어제는 물론 왕이 쓴 어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왕실 업무를 관장하던 宗簿寺에 小閣을 세워 규장각이라 이름 짓고 숙종이 친필 현판을 써서 걸었다.

이후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하면서 왕실도서관이자 국가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왕실의 주요 기록물과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었다. 규장각은 정조 이후 그 위상이 커지면서 열성조의 어제, 어필을 비롯하여, 국가의 주요한 행사 기록을 담은 의례, 각종 문집 등 조선후기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이를 보존해 왔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편찬활동과 서적 보관에 힘을 기울이던 정조는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지을 것을 명했다. 보다 안전하게 왕실의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적 경험상 궁궐 내에 국가의 중요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781년 3월 정조가 강화도에 외규장각의 기공을 명령한 지 11개월이 지난 즈음인 1782년(정조 6) 2월 강화도 외

규장각 공사의 완공을 알리는 강화유수의 보고가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강화도 외규장각에는 어첩, 어필, 의궤 등 왕실 관련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보관되었으며, 1866년 병인양요로 파괴되기 까지 100여년간 조선후기 왕실문화의 보물 창고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sup>51)</sup> 1784년에 편찬된 『奎章閣志』에 따르면, 외규장각은 6칸 크기의 규모로 행궁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고,<sup>52)</sup> 정조 때 부타 본격적으로 의궤 등 왕실의 주요 전적들이 집중적으로 보관되었다.

왕이 친히 열람한 어람용 의궤의 운명은 외규장각과 함께 조선왕실의 기록물 관리의 빛과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람용 의궤는 종이로 고급 草注紙를 사용하고 寫字官이楷書體로 정성을 들여 글씨를 쓴 다음 붉은 선을 둘러 왕실의 위엄을 더했다. 어람용은 장정 또한 철저하였다. 낫쇠 물림(경첩)으로 묶었으며, 圓環, 5개의 菊花童 등을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표지는 비단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왕실의 품격을 한껏 높였다.<sup>53)</sup> 어람용이 아닌 분상용 의궤에는 초주지 보다 질이 떨어지는 楮注紙가 사용되었으며,<sup>54)</sup> 검은 선을 두르고 표지는 삼베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정에는 正鐵과 朴乙丁 3개가 사용되었다. 왕에게 직접 바치기 위해 제작된 만큼 어람용 의궤는 표지와 종이 질, 선명한 글씨 등 문화재로서도 뛰어난 가치를 지

51) 이태진, 1994 『왕조의 유산』 지식산업사.

52) 외규장각은 창덕궁에 위치하면서 조선후기 문화운동을 선도했던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곳을 ‘규장외각’ 또는 ‘외규장각’이라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53)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의궤 197책 중 대부분의 의궤의 비단 표지가 개장되었다. 이 중 12책은 원래의 비단 표지를 하고 있는데, 초록 비단의 품격은 매우 뛰어나다.

54) 조선시대에 사용된 초주지와 저주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손계영, 2005 『조선시대 문서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니고 있다.

그러나 외규장각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침공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강화도에 주둔했던 프랑스군은 조선군의 강렬한 저항으로 퇴각하면서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던 왕실의 기록물들을 파괴하였다. 당시 외규장각에는 약 6,000여점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sup>55)</sup> 이 중에서도 프랑스 군인들의 눈을 자극한 것은 채색 비단 장정에 선명한 그림으로 장식된 어람용 의궤들이었다.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을 방화하는 과정에서도 의궤는 불태우지 않았다. 고급 문화재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화려하고 품격 있는 의궤의 장정과 비단표지, 그리고 의궤에 그려진 채색그림이 지닌 가치와 예술성이 서양인의 눈에도 번쩍 띄었을 것이다. 300여책의 의궤는 이들의 퇴각과 함께 약탈당했으며, 당시 화염에 휩싸였던 외규장각은 그 흔적만을 남긴 채 140여년을 뛰어넘어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현재 프랑스에는 297책의 의궤가 보관되어 있다.<sup>56)</sup>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가 프랑스군의 放火로 사라진 의궤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광해군대 과학과 천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흙경각영건의궤』와 『보루각수개의궤』를 들 수 있다. 이들 의궤는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해군대에 흙경각과 보루각을 영건하거나 수개하는 도감이 만들어졌고, 『외규장각형지안』에 그 목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의궤가 제작되었음은 분명하다.<sup>57)</sup>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1857년과 1858년의 『江華

55) 1858년에 작성된 『강화도외규장각형지안』<규9318>에는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던 의궤류 등 서책들의 목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56) 2007년부터 297책의 의궤 중 유일본으로 파악된 30책에 대해서는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여, 2008년 현재 디지털 데이터가 문화재청에 보관되어 있다.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가 기대가 된다.

57) 신병주, 2006 「광해군 시기 의궤 편찬과 그 성격」 『남명학연구』 22.

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에 따르면<sup>58)</sup> 『흠경각영건의례』와 『보루각수개의례』는 『祭器措備儀軌』(1책, 1611년), 『화기도감의례』(1책, 1615년), 『賜祭冊封天使迎接都監儀軌』(6책, 1608년), 『영접의례』(3책, 1609년), 『王世子冊封天使盤膳儀軌』(3책, 1610년), 『奉勅宣諭接待儀軌』(11책, 1612년) 등과 함께 외규장각의 北左卓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sup>59)</sup> 이처럼 외규장각은 동, 서, 남, 북, 중앙에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 의례를 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은 외규장각에 보관된 의례가 프랑스 군대에 의해 약탈을 당하기 전 의례가 보관되어 있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sup>60)</sup>

1866년 강화도를 침공했던 프랑스의 해군장교는 자신의 종군기에서 ‘이 곳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 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에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서술하였다고 한다.<sup>61)</sup> 시골 구석구석까지 책이 읽혀지던 19세기 후반의 조선 풍속도가 외국인에 의해 관찰되었음은 매우 주목되는 사례이다. 기록문화의 보급이 지방 곳곳에까지 전파되었던 분위기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조선후기

58) 1857년과 1858년의 외규장각 형지안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기 직전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외규장각 도서의 보관 상황과 프랑스군대의 약탈에 대해서는 이태진, 1994 『왕조의 유산』, 지식산업사.

59)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규9138> 및 <규9165의 2>

60) 2001년 KBS의 역사스페셜 「사라진 보물창고 외규장각」 편에서는 본 형지안을 바탕으로 외규장각 의례가 보관된 상태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규장각에 여러 가지 서책들을 전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61) 이태진, 1994 『왕조의 유산』 지식산업사, 179쪽.

기록문화의 정수를 담아왔던 외규장각이 최근 강화도에 건물 복원이 이루어졌다.<sup>62)</sup> 이곳이 조선후기 문화의 정수를 고스란히 간직했던 공간임을 인식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이곳을 찾는 의미도 훨씬 커질 것이다.

### 3) ‘實錄形止案’의 작성과 기록물 관리

#### (1) ‘실록형지안’의 작성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탁월한 기록물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뛰어난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장서기록부인 ‘실록형지안’이 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실록형지안’은 실록의 奉安이나 曝曬, 考出, 실록각의 보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고를 열어야 할 때 그 사유와 함께 당시의 보관 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장서 점검 기록부’로 볼 수 있다.

실록형지안에서 실록과 관련하여 기재한 내용은 사고를 연 날짜, 왕대별 실록명, 궤작의 수, 책수 및 권수, 각 권의 해당 기간 등이다. 실록의 보관 내역을 기재한 후에는 御製 및 儀軌, 형지안, 각종 서책의 제목을 궤별로 적었다. 형지안의 마지막 부분에는 봉안의 임무를 띤 사관의 직책과 이름을 기록하고, 요즘의 싸인에 해당하는 手決을 했다.<sup>63)</sup>

‘실록형지안’에는 사고를 연 시기, 사고별·궤작별로 보관된 서

---

62) 강화도에 복원된 외규장각은 왕실 건물임을 고려하지 않고, 정면 3칸, 측면 2칸이라는 기록을 그대로 적용하여 복원하여 실제의 외규장각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63) 봉안사는姓만을 기록하고 이름은 쓰지 않고 手決만 하였지만 실록 등의 기록을 통하여 봉안사의 실명을 확인할 수가 있다.

책의 종류와 수량, 그곳에 파견된 사관과 실무자들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1601년 9월 11일에 작성된 「묘향산사고포쇄형지안」을 보면, 『태조실록』에서 『명종실록』까지 궤짝에 보관한 것이 나타난다. 1궤에 『태조실록』 15책과 『정종실록』 6책을 보관한 것에서 시작하여, 45번째의 궤짝에 『명종실록』 9책을 보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sup>64)</sup>

이외에 실록형지안에는 의궤, 역사서, 지리지, 의례서, 천문학 관련 서적 등의 보관 상태도 기록되어 있다. 실록형지안을 통하여 조선시대에는 실록을 비롯하여 각 사고에 보관된 서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규장각에는 현재 총 585책의 형지안이 소장되어 있는데 제목이 실록 및 선원록의 형지안이 대부분이다.<sup>65)</sup> 제목이 ‘실록형지안’으로 되어 있는 책에도 실록 이외에 의궤, 문집, 역사서 등 사고에 보관된 서책을 망라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왕실 장서 도서 목록으로 볼 수 있다. ‘실록형지안은 조선후기에 기록물의 편찬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음을 볼 수 있는 사례로 파악된다.

## (2) 포쇄를 통한 기록물 관리

조선 왕실에서 기록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정기적인 포쇄 작업이다. 특히 ‘실록형지안’은 曝曬를 했을 때 작성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포쇄는 책을 바람에 말려 습기를 제거하여 부식 및 충해를 방지시킴으로써 서적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종대 이후에는 춘추관 문서의 경우 3년(간지가 辰戌丑未로 시작하는 해)에 한번씩 포쇄를

64) 대개 1궤 궤짝에는 최저 7책에서 최고 30책까지 담겼는데 아마도 각 책의 크기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65) 서울대규장각,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사부2 참조.

행할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난다.<sup>66)</sup> 그러나 이 원칙이 완전히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1902년 예문관의 규례와 임무를 규정한 『翰苑故事』의 ‘曝曬式’에는 외사고의 경우 효종대이후 매 2년마다 1번 포쇄를 하는 것이 定式이 되었지만 예문관에서는 4년에 한 번, 강화에서는 2년에 한 번 포쇄한다는 傳聞이 있으나 전거할 자료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sup>67)</sup> 이처럼 포쇄는 정기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별, 지역별로 포쇄를 하는 주기는 상당히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적상산사고의 경우 포쇄한 연대를 확인한 결과 주기가 완전히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략 2~3년의 주기를 두고 포쇄가 행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포쇄는 주로 봄·가을에 청명한 길일을 택하였으며, 왕명을 받은 전임 史官인 예문관의 奉敎, 待敎, 檢閱(이들을 8翰林이라고 한다) 중에서 한 사람을 파견하였다. 『翰苑故事』에는 포쇄 때의 구체적인 의식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열성조의 실록은 강화도 및 적상산성(무주), 태백산(봉화), 오대산(강릉)의 4곳에 보관한다. 춘추관에 소장된 실록은 兵火로 다 散失되고<sup>68)</sup> 다만 선조이후 실록만 있다. 각처 사고에 있는

66)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0월 8일(임인).

議政府據禮曹呈啓 春秋館史庫文書 依科擧式年例 隔二年 辰戌丑未曝曬 從之

67) 『翰苑故事』 <古5122-3A> 「曝曬式」

外處史庫二年一次曝曬 孝廟庚寅三月二十二日 因禮曹啓目 而定式者也 至於本館曝曬之間 四年一行 江華曝曬之間 二年一行 只出於下輩口傳 而終無加據之文籍 或是傳誤襲訛也

68) 춘추관 사고본의 실록은 1624년 이괄의 난 때 전소되어 이전의 실록 대부분이 없어졌다. 이후 춘추관 사고는 소실된 전대의 실록을 복구하지 않은 채 새로이 편찬되는 실록만 보관했다. 1811년에도 춘추관 사고에 화재가 발생 상당수의 실록이 소실되는 등 춘추관 사고의 실록은 산간 외사고의 경우와 달리 잔본 실록 몇 종만이 보관되었다.

실록의 포쇄는 매 2년마다 1번 한다. 한림 1명이 왕명을 받들어 내려가 사고의 문을 연다. 이때 黑團領을 갖추고 史閣 앞에서 4배를 한다. 사고 문을 열고 奉審(받들어 살핌)한 후에 奎작을 열어 포쇄한다. 포쇄를 하는 날자의 수는 마명함을 헤아려서 한다. 포쇄가 끝나면 奎작에 넣고 돌아와 奉安한다.(이때는 4배를 하지 않는다) 69)

‘실록포쇄형지안’의 기록에 의거하면 대부분 9월이나 10월(음력)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명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늦가을이 포쇄의 적당한 시기임이 나타난다.

조선후기에는 사관이 직접 포쇄의 임무를 맡아 수행한 후에 이를 기록으로 남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숙종 때의 사관 신정하(1681~1716)는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겼다. 신정하는 1709년(숙종 35) 가을 포쇄관에 임명되어 태백산사고로 포쇄를 갔다왔고, 이때의 경험을 「太白紀遊」라는 기행문과 「曝史」라는 시로 남겨 놓았다. 먼저 「태백기유」 중에서 포쇄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史閣은 담장을 쳤고, 담장 동쪽에 사관이 포쇄할 때 머무는 蓮僊臺라는 건물이 있다. 사각에는 번을 서는 참봉과 이를 지키는 승려가 늘 머무른다. 사각에 이르면 네 번 절한 뒤 자물쇠를 열고 奉審을 한다. 포쇄는 3일 동안 하였는데 날씨가 늘 맑았으며, 이때 포쇄한 서적은 서른여섯 상자이다. 포쇄가 끝나면 서

69) 『翰苑故事』 「曝曬式」

列聖實錄 藏于江華及赤裳山城(茂朱)太白山(奉化)五臺山(江陵)四處 而春秋館所藏實錄 則兵火之後 盡爲散失 只有先祖以後實錄 各處史庫實錄 曝曬二年一次爲之 而翰林一員 承命下去 開庫時 具黑團領 史閣前四拜 開庫奉審後 仍爲開櫃 曝曬日數 則量其宜 曬畢入櫃 還爲奉安(無四拜)

적을 상자에 담아 사각의 누옥에 넣고 전처럼 봉인을 한다.」<sup>70)</sup>

신정하는 포쇄할 때의 심정을 「포사」라는 시로 노래하기도 했다.

我來啣丹詔 나는 임금의 조서를 받들고/ 駙騎橫秋風 가을 바람에 말을 달려 왔네.

再拜手啓鑰 두번 절한 뒤 손수 자물쇠를 열고서/ 曝之蓮臺畔 연선대 가에서 포쇄를 하네.

金箱三十六 귀한 상자 서른여섯 개를 내놓으니/ 白日當天半 해가 하늘 중앙에 이르렀네.

過風時與披 지나는 바람에 때로 책장을 열고/ 度鳥忽遺影 날던 새가 그림자를 남기네.

時於簡編中 때때로 서적 가운데서/ 是非獨自領 시시비비를 깨닫네.<sup>71)</sup>

19세기 학자 홍경모의 문집인 『冠巖遊史』(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古3428-263>)의 권14, 「石室載筆」에도 실록을 비롯한 서책을 포쇄한 기록이 실려 있다.<sup>72)</sup>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포쇄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

國朝實錄成印 藏于外史庫 蓋藏之名山之意也. 國初分臧於忠淸

70) 신정하, 『怨菴集』 권11 「太白紀遊」

71) 신정하, 『서암집』 권3 「曝史」

72) 홍경모(1774~1851)는 조부 홍양모의 학문을 전수받았으며 당색으로는 소론에 속하였으나 조부 이래의 학풍과 관련하여 홍석주, 신위 등 당대의 노론계 명류들과도 교분을 가졌다. 14권에 수록된 「석실재필」은 1810년(순조 10)에 태백산 사고의 실록을 포쇄한 과정과 주변의 경관을 기록한 것이다. 19세기에도 실록에 대한 포쇄가 꾸준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之忠州 慶尙之星州 全羅之全州 及京之春秋館 宣祖壬辰之亂 或失於兵 或燼於燹 惟全州者獲免亂 平移置于江華之鼎足山城

(국초에 실록이 완성되어 간행되면 사고에 보관하였는데, 명산에 보관하려는 뜻이었다. 국초에는 충청도 충주, 경상도 성주, 전라도 진주 및 서울의 춘추관에 보관하였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혹은 兵火로 소실되고 혹은 불에 타 없어졌다. 오직 전주실록은 난을 면하게 되어 평시에 강화도 정족산성에 옮겨 두었다.)

至癸卯始設局 庚寅分藏於春秋館 及關西之寧邊妙香山 嶺南之奉化太白山 關東之江陵五臺山 而後以妙香之地近上國 移藏于湖南之茂州赤裳山城

(계묘년(1623년)에 이르러 設局하여, 경인년에 춘추관 및 관서의 영변 묘향산, 영남의 봉화 태백산, 관동의 강릉 오대산에 분장하고, 이후에 묘향산 지역이 上國(청)과 근거리여서 호남의 무주 적상산성에 옮겨 보관하였다.)

每三年 遣史官奉審而曝曬 上之十年庚午 爲三年之次 臣以左史乘命 九月十八日 乘傳致到于奉化之太白山史閣 閣在太白之麓 傍有瑯源閣俱 於明宗元年丙午創建 置參奉二人僧軍三名守之 臣具公服 祇拜于瑯源閣及史閣 開史閣奉審

(매 3년 마다 사관을 보내 봉심하고 포쇄를 한다. 상 10년(순조 10년) 경오(1810년)가 삼년이 되는 해였는데, 신(홍경모)이 左史乘으로서 명을 받아 9월 18일 전교를 받고 봉화 태백산 사각에 도착하였다. 사각은 태백산의 산기슭에 있었고, 옆에는 선원각이 있었다. 명종 원년 병오년(1546년)에 창건하였고, 참봉 2명과 승군 3명을 두어 지켰다. 신은 公服을 갖추고 선원각 및 사각에 절을 하고 사각을 열고 봉심하였다.)

閣之上樓奉安列聖朝實錄 御製及誌狀 下藏各都監儀軌 與先輩文集 次開瑯源閣上樓 奉審瑯源譜牒 是日也 山嵐噎濕 不得曬陽 止宿於閣下 厥明晚始開郎 使僧軍奉出實錄 曝曬於閣庭

(사각 위 누각에 열성조실록 및 어제, 지장을 봉안하였다. 아래에는 각 도감 의례와 선배 문집을 보관하였다. 다음에 선원각 위 누각을 열어 선원보첩을 奉審하였다. 이날은 산세가 흐릿하고 음습하여 포쇄를 할 수 없었다. 그치고 사각의 아래에서 숙박했다. 뒤늦게 맑아져 승군으로 하여금 실록을 奉出하게 하고, 사각의 마당에서 포쇄를 하였다.)

第一櫃 太祖朝實錄三冊 定宗朝實錄一冊 太宗朝實錄十六冊 合二十冊 二櫃 世宗朝實錄二十冊 ... 五十八櫃 定宗朝實錄七冊 別櫃第一 光海君日記中草三十二冊 第二櫃 光海君日記中草三十二冊 合十三櫃一百五十七冊 御製御筆誌狀寶鑑 合十二櫃... (첫 번째 櫃작 『태조실록』 3책...)

위의 기록에서 19세기까지 포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음과 함께 그때그때 서적이 보관되고 있었던 상황을 ‘형지안’에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록의 점검을 조선시대 내내 꾸준히 이어졌고, 왕명을 받은 사관들은 이러한 작업을 자부심으로 여겼음이 확인이 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왕실 기록물 대부분이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산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고, 포쇄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 즉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를 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기록물의 편찬과 관리의 측면을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儀軌』의 편찬과, 사고 및 외규장각의 설치, 실록청의궤와 실록형지안의 작성을 중심 소재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고문서, 문집, 지리지 등 다양한 국가기록물을 편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시기적으로 연속해서 간행된 거질의 편찬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조선후기에 왕실이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기록물을 편찬, 보관, 관리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다.

현장에서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에 담은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당대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기록물이 보존되는 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험준한 산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고, 강화도와 같은 국방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외사고를 설치하였다. 왕명을 받은 사관이 정기적으로 사고에 가서 서책을 점검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기록물 점검의 전 과정을 ‘실록형지안’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기록물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왕명을 받은 사관이 포쇄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철저하게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한 결과 현재에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조선후기에 작성된 고문헌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선조들이 남겨준 뛰어난 기록문화와 그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한 정신과 관리 체계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적극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 ABSTRACT

### Compilation of records and Management of those materials,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Shin, Byung Ju

In this article, how the records were compiled, stored and managed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s examined. In details, the compilation of <Seungjeongweon- Ilgi> and <Ilseongrok> and Euigwe, the establishment of ‘history chambers(史庫)’ and the Wae-Gyujanggak facility, and the creation of records such as ‘Shillok Hyeongji-an’, are all investigated. Examination of all these details revealed that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the royal family which actively led the task of meticulously compiling records and also storing & managing those established materials with great integrity and passion.

The intention behind creating all these records containing everything the kings said and done over centuries must have been determination to enhance the openness and integrity of politics in general, while als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uch values inside the government. In order to establish a tradition preserving records not only for a limited time period but also for eternity, ‘history chambers’ were founded in rocky mountain areas, and additional chambers(Wae-Sago) were created as well, in areas deemed strategically safe in military terms such as the Ganghwa-do island. Officials put in charge by the king himself of historical documenting reported to the history chambers on a regular basis and checked the status of the materials

in custody, and the whole checking process was documented into a form called 'Shillok Hyeongji-an'. And for long-term preservation of materials, officials sent by the king regularly took all the materials outside, and conducted a series of 'desiccating procedures', under strong sunlight('Poswae').

Thanks to the efforts of our ancestors who did their best to preserve all the records, and tried everything to manage them with great caution, we can examine and experience all these centuries-old materials, mostly intact. It is imperative that we inherit not only the magnificent culture of creating and preserving records, but also the spirit which compelled our ancestors to do so.

**Key words:** Seungjeongweon-Ilgi, Ilseongrok, Euigwe, history chambers, Shillok Hyeongji-an, 'desiccating procedures', under strong sunlight('Poswae').